

- (10) 곡관부위 등 취약지점은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공을 실시하여 추후에 이탈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
6.3 하수도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

- (1) 기존 하수도관을 절단하여 장기간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체시설은 우기를 감안하여 기존 하수도관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하수도관에 근접하여 굴착할 때에는 기존 하수도의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적합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지반이완으로 하수도 연결부가 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굴착토사가 빗물받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공사용수를 하수도에 배수 시에는 미리 토사를 침전시켜 토사가 하수도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.
- (5) 가설하수도관 설치 시 기존 하수도관과의 연결부분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통수 단면은 기존하수도 단면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.
- (6) 성토 구간의 하수도 시설은 지반침하가 되지 않도록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.

6.4 전력 및 전기통신 시설의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

- (1) 공사의 계획단계 등 착공 전에 전력 및 전기통신 설비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 조회하고 실태파악을 하여야 한다.
- (2) 소형 브레이커에 의한 케이블 또는 관로의 파손 방지를 위하여 케이블 매설장소 부근은 표면층을 제외하고는 인력굴착을 하고 공사 착수 전에 시험 굴착을 하여야 한다.
- (3) 지반개량 작업 중 약액 주입재료가 관로 안으로 유입되어 고결됨으로써 케이블의 설치작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 공법, 시공시기, 대책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.